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1. 7. 15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한겨레신문 “지식경제부 등 18개 부처 7, 9급 출신
고위공무원 한 명도 없어” 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 요지 (‘11. 7. 15, 한겨레신문)

- 지식경제부, 기획재정부 등 18개 중앙부처(위원회 포함), 7급과 9급 출신 고위공무원은 한명도 없음.

2. 동 보도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7.15일 현재 지식경제부에는 5명*의 비고시 출신 고위공무원이 재직중임.

* 5개 직위 : 비상안전계획관, 기술표준정책국장, 지식산업표준국장, 연구개발특구기획단장, 전북지방우정청장

- 특히, 최중경 장관 취임(‘11. 1월) 이후 김무홍(지식산업표준국장), 남준현(전북지방우정청장) 등 7·9급 출신 국장을 신규 임명하는 등,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정책을 펴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운영지원과 장영진과장(02-2110-5050)